

자위적국방력강화의 력사에 특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제 8 차 군수공업대회 성대히 개막

2 번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시고 핵무력강화의 비적로 대를 마련해주신것은 우리 조국을 천하무적의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서우며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력사적분수령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국방공업 령도자는 몸소 국방공업건설의 총사령관, 정치위원이 되시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불멸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위협천한 시험발사장들을 찾아 쉬임없이 이어가신 멀고 험한 길을 과 풍랑사나운 배길들, 비탄세찬 하늘길들에는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온넉과 실험을 장그려 바쳐오신 위대한 헌신의 단단사연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국방과학자들에게 주체무기개발의 종자와 과학적발견의 착상도 띄워주시였으며 지들되는 실례에 주지않을 때에는 국방과학의 길은 자주적의 길, 혁명의 길이라는 혁명적신념을 심어주시면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은 국방과학자들이 첨단군사과학기술의 높은 고지대를 최단기간에 정밀하게 한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었다.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주시며 증중침침 막아서는 시련의 천막고 비를 상생결단의 의지로 강행돌파하여 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눈물겨운 애국헌신과 굴함없는 공격정신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할 군사적기적들을 불과 1-2년 안에 이룩하며 세계적 핵강국, 군사강국의 전례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략적인 결단에 의하여 단행된 두차례의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과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1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국방공업발전의 일대 변혁의 시대를 열고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한 우리 인민의 오랜 속망을 빛나게 실현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들이다.

보고자는 국방공업발전에 최대의 힘을 넣으시어 우리 혁명무력을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최악의 역경과 시련속에서 우리 조국을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세계적 군사대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우리 인민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자자손손 자주적이며 존엄을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 7 차 군수공업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세상을 놀래우는 눈부신 비약을 이룩하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핵방으로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한 승리와 영광의 나날이라는 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의 국방공업이 당중앙의 령도를 생명으로 삼고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길로만 곧바로 전진하여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오늘 국방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백승의 기치이라는 역적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수령결사옹위의 제일선에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절대적진리로 새겨안고 당의 유일적령도만을 받들어나가는 강결같은 규율과 혁명적기동이 확립되었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전 대오가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나아가는 불패의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것은 주체적국

방공업의 고유한 특성이며 최강의 위력이라고 강조하였다.

새로운 주체무기개발사업을 적극 다그쳐 국방공업발전에서 첨단물과 새 력사를 펼치고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힘있게 과시한것은 위대한 병진의 기치밑에 국방공업부문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국방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핵무력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무기들을 개발완성하여 자위적국방력강화에서 일떠서 없었던 사변적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핵무기연구부문에 있어서 강력한 핵무기를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확고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 구상에 따라 지난해 불과 9개월동안에 첫 수소탄시험과 핵탄두폭발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한데 이어 올해에 대륙간탄도로켓 정상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것은 우리 조국을 세계적 핵강국의 전례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미래의 침략과 핵위협에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대승리라고 강조하였다.

로켓연구부문에 있어서 군사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의 득점물만 되어있던 첨단핵심기술과 재료들을 우리 식으로 연구 완성하여 전략무기개발의 돌파구를 열어 놓은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특히 대륙간탄도로켓의 대속력발동기를 반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개발완성하여 로켓공업을 개발창조함으로써 확고히 전향시키고 주체로켓공업의 새로운 탄생을 선포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의 정책적인 령도에 의하여 수증과 지상 임의의 공간에서 정확히 신속하게 전략적타격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위력한 핵공격수단인 《북극성》무기체계가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 공화국이 전략적합량 탄도탄보유국으로 굳기초모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형중량탄두를 장착하게 설계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이 만년 남짓한 기간에 개발완성되어 일본열도를 쾡쾡리 지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한것은 태평양 전 작전지대를 핵타격전선에 두고있는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군사적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또 하나의 대승리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전략적핵무력의 일대 시위인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의 편이성공적발사는 수소탄과 함께 그것을 미국의 심장부에 날려보낼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군사대국으로 급상승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준 력사적장기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조선로동당의 정치적결단과 전략적결심에 따라 미국본토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새형의 완결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우리 인민이 일일

천추로 갈망하던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민족사적인 대승리,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사변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당의 혁명무력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위력한 주체무기, 주체탄들이 수없이 개발완성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국방공업부문에서 당이 준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여 적대상물들을 정밀타격할수 있는 각종 공격수단들과 우리 식의 위력한 저격무기, 땅크, 장갑차, 반땅크로켓 그리고 현대적인 함상무장장비들과 무인전투장비 등 첨단무기들과 전투기술기체들이 마련된것은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성과들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식의 현대적이고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는 주체적국방공업의 위력앞에서 적들은 전멸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필승의 신심과 막판에 넘쳐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으며 군사리론과 공군사령관들의 불길속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용모에서 전환이 일어났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국방공업발전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국방공업건설위업을 받드시어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승리며 우리 당과 사상도 승결도 발결도 같이해온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의 고결한 충성과 영웅적투쟁, 당의 병진로선을 한마음으로 절대지지고 총직하게 받아들인 전체 조선인민의 승리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적국방공업의 창설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병진의 기치높이 우리 조국을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었다.

그는 당의 병진로선을 받들고 계속혁신, 연속공격의 정신으로 총대진하여 주체적국방공업발전의 전성기를 최전성기로 이어나가며 자위적국방력을 핵방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한 국방공업부문의 전망과 과업들에 대하여 제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수공업부문에 있어서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군사리론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있는 우리 식의 다양한 군사적리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결사관철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국방공업부문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사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의 국방공업 령도자가 세대와 세기를 이어 줄기차게 흐르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국방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 어떤 천지공파속에서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을 굳게 믿고 충성으로 받들며 당중앙의 권위를 결사보위하여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는 파타이며 승리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믿음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강한 혁명적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우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무장장비현대화방침을 받들고 다시한번 영웅적투쟁을 벌려 우리 식의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주체적립장에 본흔히 서서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첨단물과 기적을 편이 창조하며 오늘의 대성공을 더 큰 승리를 위한 도약대로 삼고 계속박차를 가하여 국가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항일의 연길록탄정신, 전회의 군사리정신으로 새로운 생산적양상의 불길들 지퍼올리며 국방공업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혁명무력강화와 전민무장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에 충직한 국방과학자사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입심단결하여 병진의 기치따라 주체적국방공업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지난 시기 당의 군수공업 정책을 받들고 국방과학연구사업과 국방력강화에서 이룩된 성과와 우수한 경험들이 활발히 교환되고 그에 토대하여 주체적국방공업발전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들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당중앙이 안겨준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안고 지난 기간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하여 국가핵무력완성과 우리 식의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자기 단위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대중을 당의 군수공업정책관철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침입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국방력강화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이 나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하라고 하시는데로만 하면 그 어떤 힘찬 요새도 다 점령할수 있으며 세계가 알수도 없고 총내낼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영웅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수 있는 혁명의 철리를 심장마다에 깊이 새기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의 병진로선을 결사관철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력갱생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발휘해나간다면 못헤낼 일이 없다는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토론들에서는 국방과학연구부문의 군수공업부문에 내재하고있는 결함과 요훈들도 분석총화되었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제 2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들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주체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대회는 계속된다.

본사정치지도부

